



청소년 발달 보장을 지향하는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 이론 : 다나카 마사토의 『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나카 마사토 (田中 昌人) 1932－2005 년

와타나베, 아키오
梁, 洙京

(Citation)

계간 교육법, 222:72-77

(Issue Date)

2024-09

(Resource Type)

journal article

(Version)

Author's Original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92450>



청소년 발달 보장을 지향하는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 이론 :

다나카 마사토의 『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나카 마사토 (田中 昌人) 1932-2005 년

와타나베 아키오(渡部昭男)

오사카 신아이 가쿠인 대학 교수

1. 약력과 주요 업적

【약력】 1932 년 도쿄 출생. 1954 년 교토 대학 교육학부(교육 심리학 전공) 졸업. 동교 교육학부 조수를 거쳐 시가현립 오미 학원 (이토가 카즈오 ((糸賀一雄) 원장, 1914-68)에서의 실천 창조에 참여(1956 오츠시립 난고 중학교 오미 학원 분교 교사, 1964 학원 지도 과장). 1970 년 교토 대학 교육학부(교육 방법학 부문[B 코스] 교육 지도 강좌)에 조교수로 부임, 1983 년 교수 취임 후 1995 년에 정년 퇴임(명예 교수). 1996-2003 년에는 류코쿠 대학 문학부 교수로 재직. 그 사이 전국 장애인 문제 연구회 초대 전국 위원장(1967-81), 인간 발달 연구소 초대 소장(1985-2005), 일본 응용 심리학회 회장(1998), 대학 평가 학회 공동 대표(2004-05)를 역임하였다.

【주요 업적】 교토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의(1995.3.7)에서 자신이 구분한 항목으로 소개한다(다나카 마사토 『발달 연구에의 뜻』 아이유피(あいゆうびい)/호우분사(萌文社) 1996). ①연구의 출발점 : 「신태교의 가능성과 전개상의 제문제—Schwangerschafts-toxikose 의 태아에 미치는 영향 조사—」 (1953 년도 졸업 논문). ②발달 보장—운동과 이론화— : 『강좌 발달 보장으로 가는 길』 1 ~ 3 (전국 장애인 문제 연구회 출판부 1974). ③개인의 발달계에서의 「고용한 법칙성」으로부터 「다이나믹한 법칙성」의 해명으로 : 『인간 발달의 과학』 (아오키 서점 1980), 『인간 발달의 이론』 (동 1987), 다나카 스기예(田中杉恵) 『발달 진단과 오츠 방식』 (동 1989), 다나카 마사토 · 다나카 스기예 · 아리타 토모유키(有田知行) (사진) 『아동 발달 진단』 1 ~ 5 (오츠키 서점(大月書店) 1981-88), 『영유아 발달 진단 입문』 (동 1985). ④「발달」 개념에 대한 역사적 검토 : 「우리 나라에서의 발달 개념 생성에 대하여(1)」 (인간 발달 연구서 기요(2)1988), 「문명 개화기에서 발달 개념의 도입에 대하여」 (교토 대학 교육학부 기요(34)1988), 「우리 나라에서의 커리큘럼 개혁과 발달 연구의 출발」 (교토 대학 교육학부 B 코스 공동 연구 보고서집 II 1990), 「일본에서의 발달 개념 도입에 대하여」 (교토 대학 교육학부 기요(37)1991), 「난학에서의 발달 개념 도입에 대하여」 1 ~ 3 (동(39)1993, (40)1994, (41)1995), 「일본에서의 발달 개념의 도입에 대하여」 (교토 대학 교육학부 B 코스 공동 연구 보고서집 III 1994). ⑤개인 발달 계에서 「아름다운 법칙성」의 해명을 향하여 : 다나카 마사토 · 다나카 스기예 감수 『발달 진단의 실제』 영상 자료 1 ~ (오츠키 서점 1993-). 최종 강의 이후도 포함한 일람으로서는, 사망한 다음 해에 출간된 『흙이 갈라진 시간』 (크리에이츠 카모가와(クリエイツかもがわ), 2006)에 실린 「업적 목록」(나카무라 류이치(中村隆一))이 있다. 또한, 「젊은 날의 다나카 마사토의 작업」을 문제의 관심으로 삼은 오이즈미 히로시(大泉滂)가 편집 · 해설한 『일본의 아동 연구 — 메이지, 다이쇼, 쇼와— 제 13 권: 다나카 마사토의 발달 과정 연구와 발달 보장 이론의 형성』 (크레스 출판, 2011)에는 초기 저작 및 상세한 연보(879-890)가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남겨진 방대한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이 인간 발달

연구소의 자료 보존 프로젝트(<https://j-ihd.com/project.html>)로서 지속되고 있다.

2. 「발달·차별·역사」의 실천 관계적 관점에 기반한 발달 보장 논구

다나카 마사토의 인권 보장 운동에 대한 공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발달 보장론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그 특징은 「발달·차별·역사」라는 실천 관계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논구이다.

「발달·차별·역사」라는 실천 관계적 관점을 취하는 것은, 당시 발달 보장을 연구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이를 두고 발달만을 다루어야 한다면, 차별과의 싸움이 최우선이라는 주장, 또는 사회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등의 논의도 있었지만, 필자는 이런 접근들은 각각 기계론적 대응에 머물러 폐쇄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하고 확실하며 풍요로운 발달 보장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각 영역이 서로 통합되고, 전체가 개인을 통해 통일되어져, 생성적 연관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인식되어야 문제 해결, 더욱이 근본적 해결이 실현될 수 있다. ...／...개인의 계통, 집단의 계통, 나아가 사회 체제 계통이라는 상호적으로 내적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상대적으로 독립된 계통에서 생성의 내적 법칙성 연구가 필요하다.

[인용문의 「...」는 생략 표시이며, 「／」는 단락 구분을 표시]

(다나카 1997, 「전장연의 결성과 나의 발달 보장론」, 『전장연 삼십년사』, 전국 장애인 문제 연구회 출판부 [오이즈미 2011 재수록, 824 쪽])

애초에 프랑스에서 태어나, 현재도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장 유익한 개념으로 평가받는 développement 라는 개념이 네덜란드의 ontwikkeling 로부터 서양 학문을 통해 일본어로 어떻게 대응하여 도입되고 변질되었으며, 오늘날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으로 변해 왔는가. ...누가,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그 반대의 개념으로 전환하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온 것일까? 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반대 개념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발달 보장을 촉진하는 정치로 바꾸어 나가며, 거기서 생성된 내용에 적합한 범주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동 [828 쪽])

그러나 다나카의 논구는 교육법학의 틀을 넘어섰으며, 교육법학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오히려 본지 220 호에서 다루었던 시미즈 히로시(清水寛)의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 또는 「생존=발달권」 이론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 유작 『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영향

[청년의 미래를 버리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여기서는 다나카 마사토의 유작이 된 『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신일본 출판사, 2005)의 영향을 주목하고자 한다. 다나카는 잡지 『경제』 2005년 3~5 월호에 연재한 논고 「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 과제」(상·중·하)를 엮어서 출판하기 위해 입원 중에도 수정·교정을 계속하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했다. 그가 사망(2005년 11월 18일 별세, 책은 같은 해 11월 25일 출간)하기 이틀 전 완성본이 도착했을 때, 그는 「몸을 일으켜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다나카 스기에 (田中杉恵) 2006, 「메시지」 『흙이 갈라진 시간』 9 쪽).

이 책은 연재 논고에 서장과 설명 보충, 종장과 「후기」(동년도 9 월 11 일자)를 추가한 것이다. 다나카는 그 「후기」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2005 년 8 월 7 일자 「아사히 신문」 독자란에서도 19 세 여대생이, 자신의 가정 소득이 도쿄대생 가정 평균 소득의 5 분의 1 에 불과하고, 생활비 지원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육 기회의 평등이 박탈되다니. 일본을 그런 슬픈 나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투고를 했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버리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241 쪽)

【대학 평가 학회 설립: 학생 발달 보장】

2003 년, 다나카는 3 월에 류코쿠 대학(龍谷大学)에서 정년 퇴직하였으며, 8 월에는 시가현에서 열린 전국 장애자 문제 연구회 제 37 회 대회에서 기념 강연 「발달 보장을 민주주의의 빛으로」를 진행했다. 류코쿠 대학 관계자들에 의해 대학 평가 학회 설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가을이었고, 12 월에는 설립 준비 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2004 년에 들어서면서 다나카 마사토, 이케우치 사토루(池内了), 시노하라 사부로(篠原三郎)의 연명으로 「대학 평가 학회 설립 발기인으로서의 참여 요청」이 발송되었다. 설립 준비 위원회 대표가 된 다나카는 신문사의 취재나 잡지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다.

대학 평가 학회(초대 공동 대표: 다나카 마사토 ·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의 설립 대회에서 결의된 「대학 평가 교토 선언 = 또 하나의 『대학 평가』 선언」(2004. 3. 28)에는 「학생 발달 보장」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오늘, 대학의 도시 교토에 모여 대학 평가 학회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 본 학회 설립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학교 교육법 일부 개정(2002 년 11 월)에 따라, 올해 4 월 1 일부터 문부 과학성에 의해 인증된 평가 기관에 의한 대학 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평가는 교육과 연구의 방식에 직결되며, 학문의 자유와 그것을 제도화한 대학 자치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 / 고등 교육 기관은 정부나 산업계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적인 존재로서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배움의 성과는 그들 자신만의 성과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귀중한 성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평가의 기본에는 학생들의 발달 보장이 명확하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학 평가 교토 선언」 <https://aue-web.sunnyday.jp/wordpress/top-page/about/>)

다나카는 설립 대회에서 「학생의 발달 보장과 대학 평가 : 교육 행정의 수치 목표와 발달 보장을 위한 평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 보고를 실시하고,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과 「청소년기의 전환 보장」이라는 두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적 의미를 지닌 「2006 년 문제」의 제기】

학회 설립 후, 다나카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2006 년 문제 특별 위원회」(약칭: 2006 년 문제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이 되었다. 다나카는 2006 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나, 「2006 년 문제」는 ①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 제도의 개혁과 ②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날카롭고 심오한 문제 제기였다.

...현재의 제 3 자 평가 활동에는 일본 헌법이나 교육 기본법, 학술 회의의 기존 제안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인권 규약, 국제 연합(유엔), 국제 노동 기구, 유네스코, 세계 과학 회의 등의 제안들과 심각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나 사회권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면서, 2006 년 5 월 말 및 6 월 말까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제도를 개혁하려는 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실시하는 것 등을 진지하게 다루는 시각이나 계획은 거론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것, 고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교직원의 인권과 그 가족의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 자치체의 고등 교육 행재정에 대해 평가의 메스를 들이대지 않은 제 3 자 평가는 대학 평가에 있어서의 「결함 상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회 통신 제 1 호 [2004. 4. 25]의 권두 인사말 「대학 평가 학회의 발족에 즈음하여」)

「2006 년 문제」에 대해 연대해야 할 관계 기관을 돌며 의견을 교환하고, 문부 과학성 또는 외무성에도 찾아가 설명을 요구하며, 그와 병행해 전술한 연재 논문의 집필을 진행하고 있다.

【유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적 네트워크 「13 조 모임」 발족】

국제 인권 A 규약 제 13 조회(2005.10.1 출범)가 개최한 설립 심포지엄에는 기록적인 폭설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20 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공동 대표의 미와 사다노부 (三輪定宣 현재:국민을 위한 장학금 제도의 확충을 목표로 해, 무상 교육을 추진하는 모임[약칭·장학금의 모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을 둘러싼 저자와 필자의 인연은 2005 년 3 월 27 일, 대학 평가 학회 제 2 회 전국 대회 (고마자와 대학 (駒澤大学))의 「2006 년 문제」 분과회에서 시작 되었다. 다나카 씨가 사회를 맡았고, 이 책의 바탕이 된 『경제』 논문이 배포되었다. 미와는 「일본의 고학비와 무상 교육 도입의 의의와 실행」을 주제로 보고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해 10 월, 「2006 년 문제」 해결을 목표로 「국제 인권 A 규약 제 13 조의 회」(약칭: 「13 조의 회」) 창설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나카 씨는 병에 걸렸고, 이후 이 책이 출간되었다. 12 월 22 일, 류코쿠 대학에서 회 설립 심포지엄 「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의 이념과 21 세기 일본 교육」이 개최되었고, 미와는 회의 공동 대표로서 기조 발표 「다나카 마사토 『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고」를 담당했다. 저자의 유지는 이 회의 멤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미와, 2007, 「도서 소개: 다나카 마사토 저 『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교육 정책 학회 연보 14(0), 260 쪽)

언론도 마침내 「2006 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2006 년 7 월 12 일자 아사히 신문(오사카)은 「대학 학비, 무상화를 / 강화되는 움직임에 정부는 난색

/ 국제 인권 규약, 회답 기한에」, 같은 해 7 월 29 일자 마이니치 신문 석간(오사카)은 「유엔의 “숙제” 방치 / 외무성, 『무상 교육』 에 대응 못 해 / 국제 인권 규약: 보고서 미제출」이라고 보도했다.

【고학비 = 유상 교육의 급진적 고등】

다나카 마사토는, 불충분한 통계 자료와 정보 공개 속에서 고생하면서 「전후 60 년간 초년도 학생 납부금의 급등」에 관한 일람표를 완성했다 (유작 28·29 쪽). 그는 「소비자 물가 연결 지수」란을 설정하여 식료품비와 수업료의 상승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얼마나 부당한 「급등」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폭로했다. 다나카는, 고등학교 입학부터 대학 졸업까지의 통상 7 년 동안 필요액이 「전후 60 년 동안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으며 계속 상승하여, 그것은 『유상 교육의 급진적 고등』으로 세계 최고 금액에 도달했고, 앞으로 임금이 하락해도 계속 상승하려 하고 있다」(17 쪽, 원문에서 강조)고 지적했다.

다나카 마사토(田中昌人)는 조어의 명인이다. 「유상 교육의 급진적 고등」은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의 대척점에 있는 일본의 현실, 정책의 빈곤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으며, 한탄·슬픔·분노 등의 감정 표현을 담은 강렬한 고발이 되고 있다. 필자는 서울 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 학회 ICER 2015 에서 다나카의 유작을 "How should we solve the problem of skyrocketing school fees in Japan?"이라고 영어로 번역하여 소개했는데, 반향은 컸다(WATANABE Akio,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2882>). 고발하고 해결해야 할 타겟을 「고학비」(유상 교육의 급진적 고등)라고 정의시킴으로써 학회에서도 국회에서도 매스컴에서도 그 문제의 본질이 널리 공유되게 되었다.

4. 유보 철회와 점진적 무상화로의 물결

2012 년 9 월 이후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kiyaku/tuukoku_120911.html)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1966 년 12 월 16 일 뉴욕에서 작성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의 비준서를 기탁했을 때, 동 규약 제 13 조 2(b) 및 (c)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특히 무상 교육의 점진적인 도입에 따라」에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하고 있던 중 동 유보를 철회한다는 취지를 2012 년 9 월 11 일에 국제 연합 사무 총장에게 통고했습니다./이 통고에 따라 일본국은 2012 년 9 월 11 일부터 이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에서 말하는 「특히 무상 교육의 점진적인 도입에 따라」에 구속되게 됩니다.

다나카 마사토의 유작이 나온지 7 년 후 마침내 유보가 철회되고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의 점진적 무상화가 일본의 국제 공약이 되었다(당시 민주당 정권).

이 배경에는 다나카의 정년 퇴직과 동시에 류코쿠 대학에 이동한 국제 인권 법학자 토츠카 에츠로(戸塚悦朗 변호사)의 지속적인 활동, 특히 국제 인권법 정책 연구소를 통한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다(토츠카 2017 「사회권 규약 13 조 2 항(b)(c)유보 철회의 길:국제 인권법 정책 연구소가 남긴 유산과 무상 교육 실현 전망」류코쿠 법학 50(1), 73-113). 토츠카는 다나카의 유작에 대해, 그 의의를 이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 명저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학생들의 피해 상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이

문제가 구조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 다나카 교수의 저서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인권 침해의 실태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느꼈다. ... 다나카 마사토 교수는 교육학자였으나, 그의 유작에서 고등 교육 학비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경종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국내법은 물론, 사회권 규약 13 조를 포함한 국제 인권법에 이르기까지 주도 면밀한 법적 연구를 진행하여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이 문제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한 연구자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100)

유보 철회로부터 12 년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각 정당·회파가 이하와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다.

자유 민주당 : 아베 정권에서 소비세를 두 차례 인상하여 그 재원으로 사회보장 확대와 유아 교육 무상화를 실현... 기시다 정권에서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증액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정책 결정을 실시하며 그 재원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회의록: 212 회 중의원 본회의 3 호, 2023 년 10 월 24 일,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공명당 : 내년부터...다자녀 가정과 이공계 중산층까지 확대 . . .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 안심하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2030 세대까지 대학 등 무상화를 실현해야 한다... / 먼저 입학금이나 교재 구입, 이사 비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학이나 전문 학교 등 1 학년 1 학기분의 수업료를 무상화(212 참·본회의 4 호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입헌 민주당 : 아동 수당은 세째 아이 이후로 한정하지 않고 첫째부터 증액한다. 대학 수업료 무상화는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실시한다... / 아동 수당에 대해, 첫째 자녀부터 고등학교 졸업 년도까지 월 1 만 5 천엔을 지급해야 한다... / 모든 자녀의 국공립 대학 수업료를 무상화하고, 사립 대학생 및 전문 학교 학생에게도 국공립 대학과 동급 수준의 부담 경감을 실시... / 공립 초중학교 급식비 무상화 (213 중·본회의 3 호 24.1.31, 이즈미 켄타(泉健太))

일본 유신회 : 오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녀 양육 가정 지원책 중,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한 초중학교 급식 무상화와, 취학 지원금 인상 또는 교육 바우처를 통한 고교 수업료 무상화를 이번 경제 정책으로 제안 (212 중·본 회의 4 호 23.10.25,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국민 민주당 : 교육, 과학 기술 등 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예산에는 교육 국채라는 새로운 국채를 충당할 것이다. (교육 국채로) 원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동일, 타마키 유리치로(玉木雄一郎))

일본 공산당 : 고등 교육 무상화를 목표로 즉시 대학 등의 학비를 반액으로 하고, 입학금 제도를 폐지하며, 장학금을 급부제 중심으로 개정하고, 장학금 상환액의 반액을 면제해야 (동, 시이 가즈오 (志位和夫))

레이와 신센구미: 고등학교는 당연히 국가 제도로써 무상화...／지자체간 격차를 없애고, 공사립 불문하고 부모의 수입에 관계없이 무상으로...후쿠이현, 도쿄도는...소득 제한을 철폐(213 참·문교과학위 3 호 24.3.22, 후나고 야스히코(船後靖彦)).

물가 급등에 편승한 거대 사학의 등록금 인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2024 년 들어 국립대 등록금 인상을 위한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여론 조성이 일고 있다. 이에 맞서 각지·각 캠퍼스에서 학비 인상 반대, 경제적 부담 경감·점진적 무상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다나카 마사토는 유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앞으로도 제도적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기대와 신뢰, 존경을 바탕으로 발달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21)

유작의 주장의 기저에는 《21 세기는 「발달권(the right to development)」(민주적 사회 개발과 발달 보장을 아우르는 권리[유작 205]) 보장의 세기이다》라는 확신과 전망이 깔려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 특히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나 청년의 발달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과제, 자신을 포함한 20 세기를 살아 온 사람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자각을 볼 수 있다.

점진적 무상화에 대한 탐구는 다나카 히데카(田中秀佳)의 「국제 인권법에 있어서 교육의 점진적 무상화: 일본 정부에 의한 사회권 규약 13 조 2 항 유보 철회의 의의」(일본 교육 법학회 연보(43), 2014, 55-64), 호소카와 다카시(細川孝編) 편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과 대학계 개혁』(코요 서점(晃洋書房), 2014), 미와 사다노부 『무상 교육과 국제 인권 규약: 미래를 여는 인류사적 흐름』(신일본출판사, 2016), 와타나베 아키오 『능력·빈곤에서 필요·행복 추구로: 청년과 사회의 미래를 여는 교육 무상화』(일본 표준(日本標準), 2019), 신혜봉 『국제 인권 입문: 현장에서 생각하다』(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 [이와나미 신서], 2020, 제 4 장 배움의 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의무: 사회권 규약의 관점에서), 토츠카 에츠로 「묻혀진 인권(2): 인권 실현에의 길을 가시화하는 시도」(류코쿠 법학 57(1), 2024, 127-173, 사례 1. 고등 교육 등 점진적 무상화 문제), 오카야마 시게루(岡山茂)·시라이시 요시하루(白石嘉治) 『신 대학원론』(신평론, 2024) 등의 저서들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

부기: 본고는 와타나베 아키오의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의 탐구」(『인간 발달 연구의 창출과 전개: 다나카 마사토·다나카 스기예의 작업을 통해 역사를 잇다』, 군조사(群青社) 2016, 246-256) 동 「아동 기본법과 교육 무상화 논의: 2023 년 제 212 회 ~ 2024 년 제 213 회 국회 심의에서」(일본 교육학회 제 83 회 대회 연구 발표 요강 82(0), 2024)를 바탕으로 가필 수정한 것이다.